

#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 Generative Fathering and Toddler Attachment Security\*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이영환

Department of Homemange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 Yee, Young-Hwan

### ◁ 목 차 ▷

- |                |            |
|----------------|------------|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V. 연구결과   |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The final sample for the data analyses included 83 three-year old children and their fathers. The instrument of study was the 'generative fathering'(by Yee et al, 1999). This measurement consisted two areas, first is th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and second is the responsibility on child rearing. And the child attachment security was observed through Attachment Q-Set(Waters, 1987) in the child's home. The results were following:

1. The mean of the child's attachment security was .33 and the range of attachment security was from -.07 to .79.
2. Father had higher responsibility on rearing, more involved in the child care.
3. The child's attachment security was predicted by the father's involvement in rearing. The father's responsibility didn't show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ld's attachment security. Especially among the sub-categories of involvement, the activity with child had a significant relation to attachment security. So the father's interaction with child was meaningful for the child to develop the internal working model.

###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다.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민감하게 영아에게 반응하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어머니 못지 않게 영향을 끼친다

\*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Lamb, 1987)는 연구들은 아버지를 능동적이고 양육적인 부모로서 동일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아버지 연구의 대부분은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참여의 양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 관점에서 접근, 분석함으로써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무능하며 소극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자녀양육 참여에서 불균형이 나타나지만, 아버지들은 자녀양육 참여시간의 양으로는 측정될 수 없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녀를 돌본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해 주기 위해 아버지가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실제로는 자녀양육 참여시간은 어머니에 비해 결정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자녀양육 참여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 노릇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차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시간의 부족을 아버지의 기능적 부재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Snarey(1993)는 Erikson의 생산성 개념을 자녀 양육과 연관지어, 기존의 아버지역할 개념을 탈피, '생산적인 아버지노릇(generative fathering)'이란 개념을 제안하였다. 아버지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역할이란 개념은 문화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아버지 역할은 아버지노릇(fathering)이 수동적이고(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며(남성이 경험하는 세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남성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쉽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는(다른 남성이 역할을 대신 하거나 아버지 상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Snarey는 아버지들은 자녀양육 능력이 있으며 또한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이란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좋은 아버지노릇이란 단순히 사회적으로 규정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포괄적이며 대체될 수 없는 힘든 일(work)"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역할부적합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Snarey,

1993, p15). 사실 아버지들은 자신으로부터 자녀에게 관심을 확대시킴으로써 자녀의 발달 과정을 능동적으로 돌보아주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등 양육 생산성을 발휘한다. 따라서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의 개인차를 낳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됨은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다.

한편 Bowlby에 의하면 영아가 양육자에 대해 형성하는 애착의 질은 이들 간의 관계의 질을 반영하며 양육의 질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양육자의 적절한 반응 및 일치된 지각과 정확한 해석은 영아의 안정애착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불안애착은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양육자의 지각, 해석, 반응이 비일관적이고 태만함에 기인한다(이영환, 1993). Bowlby의 동물행동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영아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낮선 상황'(Ainsworth et al, 1978) 절차를 통한 실증적 연구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행동 조직 유형은 시간에 걸쳐 안정적이며 애착의 질은 이후의 여러 기능적 측면을 예측함을 일관성있게 지지하여 왔다(Sroufe, 1985). 그러나 애착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낮선 상황'은 12개월 영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연령이 한정됨으로써 애착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는 적합하지 못하다(Waters & Deane, 1985). 또한 실험실 상황에서 측정하는 '낮선 상황' 방법은 부모와 자녀의 일상적 행동이 아니므로 측정된 결과를 일반적인 자연스런 상황에서의 애착 관계로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Waters와 Deane (1985)은 이러한 문제점을 안전 기저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애착 구성(attachment construct)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연스런 상황에서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애착 Q-Set(AQS: Attachment Questionnaire Set)을 고안하였다. AQS는 Bowlby의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생태학적 통제 체계의 관점에서 애착의 전 영역에 걸친 행동 즉 유아의 안전 기저와 탐색 행동, 정의적 반응, 사회적 참조 및 기타 사회 인지

의 여러 측면을 폭넓게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련의 연구들(Vaughn & Waters, 1990; Schachere, 1989; Pederson, Moran, Sitco, Campbell, Ghesquire & Acton, 1990)은 Ainsworth의 '낮선 상황'에서의 애착 유형과 AQS에 의한 애착 안정성 간에 상관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AQS가 유아의 애착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세 유아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아버지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양육 참여의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기 위하여 생산적인 아버지노릇 개념을 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생산적인 아버지노릇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는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많은 연구를 통해 꾸준히 주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자주 측정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일대일 상호작용(예컨대 붙잡기, 놀기, 이야기 나누기 등) 범주는 단순히 경험적으로 관찰되고, 가장 빈번히 보고되는 것들을 대표할 뿐이며, 또 다른 형태의 아버지 참여 영역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 involvement' 개념을 재구성해야 한다 (Mcbride, 1989)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아버지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참여를 일차원적 개념으로 취급하여, 관찰 가능한 양육행동으로

한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양적으로 자녀 양육 참여가 저조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왔다는 것이다(Palkovitz, 1997).

Lamb(1986)은 이러한 단일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부모와 자녀의 일대일 상호작용뿐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유용성(accessibility), 자녀의 복지와 돌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responsibility) 등 3영역으로 설명하였다. Lamb(1986)의 두 번째 수준인 아버지의 유용성 개념에는 부모-자녀 간의 직접적인 참여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자녀 양육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McBride(1989)는 이 범주를 자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의 방을 청소하거나, 또는 자녀가 다른 방에 있을 때 단지 같이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Lamb의 세 번째 범주인 책임감은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욕구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적 전략, 예컨대 소아과 의사와 약속을 정하는 것, 축구 연습에 자녀를 데려다 주는 것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Snarey(1993)는 아버지의 역할수행 및 참여를 에릭슨의 생산성의 개념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Erikson의 인간발달 단계 중 7단계인 생산성 단계는 예술 작품의 창조나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 양육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아버지 역할 및 참여를 생산적인 부모노릇의 관점에서 조명, Erikson의 생산성을 자녀 양육과 연관지어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이란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미간행). Hawkins와 Dollahite(1997) 역시 이제까지 아버지역할에 대한 대다수 연구가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변화하려는 동기도 없다는 데 초점을 두어 왔으며, 아버지의 참여 부족 및 문제점을 부각하는 접근은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정확하게 기술했지만, 좋은 아버지를 기술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아버지 연구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 부족을 곧 아버지의 기능 부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아

버지들은 단순한 양적 연구에서는 측정될 수 없는 가치로운 방법으로 자녀와 시간으로 보내며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버지노릇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노릇을 이해하고 조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이라는 측정도구의 개념적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로서 Dollahite, Hawkins와 Brotherson (1997)은 아버지노릇을 생산적 일(generative work)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새로운 이론 틀을 제시하였다. 즉, 생산적인 아버지노릇(generative fathering)은 ㉠ 자녀의 욕구에 반응하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로 서약하고 선택하는 것(윤리적 일) ㉡ 자녀에게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관리하는 일); ㉢ 지지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다음 세대를 보살피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것(발달적 일); ㉣ 애착을 형성하고 이해를 증진 시킴으로써 자녀와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하는 것(관계적 일) 등을 포함하며,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가 도덕적이고 생산적이며 성숙하고 애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을 수행하는 것이다(Dollahite et al, 1997). 따라서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의 개념에는 아버지노릇의 조건과 제약으로부터 도출된 4개 영역인 윤리, 자원관리, 발달, 관계적 일이 포함되며, 각 영역에 상응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능력을 포함한다(이영환 등, 1999).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은 가족 성원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며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자녀와 심리적 상호작용을 지속하도록 해줄 뿐 아니라, 아버지는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된다. 따라서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은 아버지들이 가족에게 잠재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물질적 자원 제공 및 정신적 자원 제공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과 측정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에 대한 양육적 측면에서의 책임감을 덜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자녀의 복지나 욕구, 관심 등에 대

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은 자녀와의 접적인 상호작용이나 함께 대화하고 활동하는 것 뿐 아니라 편지나 전화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생산적인 관점은 아버지의 나태와 무기력을 비난하는 대신 다양한 스타일과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다음 세대를 돌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Hawkins & Dollahite, 1997).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을 아버지의 자녀 양육을 관찰 가능한 양육행동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물질적 지지와 같은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자녀 양육 참여로 간주한다.

## 2. 유아의 애착 안정성

Bowlby는 물리적 및 인간 세계와의 상호 과정에서 개인은 세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형을 구성한다고 제안하였다. Bowlby에 따르면 자아와 애착 대상에 대한 내적 실행모형은 양육자로부터 거절적인 경험을 자주 하는 아동은 자아의 내적 실행모형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형성하며, 양육 대상이 정서적으로 유용하며 지지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아동은 실행모형을 유능하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Bretherton, 198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정서적, 심리적, 물질적 지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자녀 양육 참여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Waters와 Deane(1985)이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고안한 애착 Q-set은 Bowlby의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형을 행동으로 기술한 90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 Q-Set의 각 항목은 유아의 행동에 대한 개별적인 참조를 제공해 주며 특히 많은 항목들의 경우 행동 발생의 특정한 맥락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 평가시 참조행동이 적절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관계적인 특성평정 방법과 다른 점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애착 Q-Set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애착 안정성 관련 변인 연구(이영, 신은주, 나중혜, 1994, 1995; 이정희, 1993), 애착 안정성과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유효순, 1996; 박응임, 1998), 낮은 상황 애착 유형과 애착 안정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나유미, 1996; 이영환, 1996; 박응임, 유명희, 1997)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유아의 애착 대상을 어머니에 한하지 않고 아버지(이영환, 1994, 1996; 양미경, 1998) 또는 탁아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나중혜, 1994; 김영명, 1998)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나유미(1996)를 제외한 이들 선행 연구는 Waters(1987)가 개발한 애착 안정성 준거 점수를 국내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유아의 행동은 각 문화권마다 아동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부모나 양육자가 선호하는 유아의 행동이 차이가 있으며(Posada, Gao, Wu, Posada, Tascon, Schoelmerich, Sagi, Kondo-Ikemura, Haaland & Synnevaag, 1995), 유아의 행동은 어머니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애착 행동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애착 기준 점수를 다양한 연령 범위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본 연구 표 2 참조).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는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12개월과 36개월 유아용으로 나눈 애착 Q-Set 안정성 준거 점수를 개발하였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전주시내 유아교육기관을 통하여 30개월 전후의 유아의 부모에게 연구참여 협조문 150부를 배포하였으며 연구참여를 희망한 부모는 90쌍 이었다. 회수된 자료 중 애착 Q-Set 관찰 당시 유아의 연령이 20개월 미만과 38개월 이상

인 경우와 부실자료 등 7부를 제외, 83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유아 연령은 24개월에서 35개월 유아가 77명으로 92.8%를 차지하고 있다. 출생순위는 첫째아이가 37명으로 45.7%, 둘째가 39명으로 48.1%이며, 남자아이가 59%, 여아가 41%이다. 아버지의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88%를 차지하고 있어 고소득층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주로 전문직과 사무직(61%)이며, 교육수준도 75%가 전문대졸 이상이다. 본 연구는 전주시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희망한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                  | 특 성              | 빈도(%)                           |
|-------|------------------|------------------|---------------------------------|
| 유 아   | 연 령              | 21 개월 - 23 개월    | 3( 3.6)                         |
|       |                  | 24 개월 - 35 개월    | 77(92.8)                        |
|       |                  | 36 개월 - 38 개월    | 3( 3.6)                         |
|       | 출생순위             | 첫째<br>둘째<br>세째이하 | 37(45.7)<br>39(48.1)<br>5( 6.2) |
| 성 별   | 남아               | 49(59.0)         |                                 |
|       | 여아               | 34(41.0)         |                                 |
| 아 버 지 | 연 령              | 30세 미만           | 4( 4.9)                         |
|       |                  | 30세 - 35세        | 37(45.1)                        |
|       |                  | 36세 이상           | 37(45.1)                        |
|       | 교육수준             | 고졸               | 20(24.7)                        |
|       |                  | 전문대졸             | 6( 7.4)                         |
|       |                  | 대졸<br>대학원 이상     | 36(44.4)<br>21(23.5)            |
| 소 득   | 100만원 미만         | 21(25.3)         |                                 |
|       |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34(41.0)         |                                 |
|       |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18(21.7)         |                                 |
|       | 300만원 이상         | 10(12.0)         |                                 |
| 직 업   | 전 문 직            | 24(32.0)         |                                 |
|       | 사 무 직            | 22(29.3)         |                                 |
|       | 관 매 직            | 12(16.0)         |                                 |
|       | 서비스직             | 5( 6.7)          |                                 |
|       | 생산 운수직           | 10(13.3)         |                                 |
|       | 단순노무             | 1( 1.3)          |                                 |
|       | 농림어업             | 1( 1.3)          |                                 |

(무응답은 missing 처리하여 빈도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2. 연구 도구

### 1) 생산적인 아버지노릇

생산적인 아버지노릇 개념을 제안한 Dollahite 등(1997)의 이론적 틀과 Snarey(1993) 및 Palkovitz(1997)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확장된 개념으로 주장하면서 제안한 양육범주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이영환 등, 1999)가 개발한 '생산적인 아버지노릇'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포함하고 있다. 양육 참여는 자녀 돌보기 영역, 자녀의 발달적 지지 영역,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척도는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과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등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

Waters(1987)의 AQS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영 등(1997)이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산출한 규준 점수(36개월 용)를 사용하여 애착 안정성 점수를 산출하였다<sup>1)</sup>.

## 3. 연구 절차

AQS를 통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 측정은 가정에서의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행동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장 신뢰할 만한 관찰자가 될 수 있다(Teti & McGourty, 1996; Waters & Deane, 1985). 특히 가정방문 관찰의 경우 관찰자의 존재가 아버지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영환,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행동을 관찰하여 Q-set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애착 Q-Set은 총 9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0개 집단에 각 9장씩 분류하였다.

관찰자는 1차 가정 방문에서 어머니에게 애착 Q-Set의 내용과 분류 방법을 설명한 다음, 어머니로 하여금 카드를 Q-Sort 방법으로 분류하는 연습을 1회 실시한 뒤 카드를 뒤섞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머

니에게 카드에 적힌 내용을 기억하면서 유아의 행동을 일주일 동안 관찰한 다음, 일주일이 지나면 Q-Set 카드를 분류하여 관찰 기록 용지에 결과를 기록하도록 당부하였다. 1차 방문 일주일 뒤 관찰자가 2차 방문하여 Q-Set 관찰 기록 용지를 회수하였다.

아버지 질문지는 1차 가정 방문시 전달하였으며 반드시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도록 당부하였다. 완성된 질문지는 2차 가정방문시 Q-Set 관찰 기록 용지와 함께 회수하였다.

## 4. 자료분석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점수의 평균은 .33으로서, 아버지를 애착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이영환(1994), 양미경(1998) 연구에서의 애착 안정성 평균이 .22와 .15인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안정성 점수가 높았다. 또한 불안집단과 안정집단을 구분하는 하위 1/3에 해당(Park & Waters, 1989)하는 안정성 준거 점수를 살펴볼 때, 이영환(1994)과 양미경(1998) 연구에서는 .15와 .00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25로 두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형제 수, 유아의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다음 표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아버지에 대한

1) 규준점수를 활용한 애착 안정성 점수 산출방법은 이영환(1994) 참조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자녀 관계에서 어머니가 취업했을 경우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이러한 자녀와의 상호작용기회가 유아 아버지에게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총 소득에 따른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300만원 미만인 다른 두 집단의 유아보다 안정성이 높았다. 이영 등(1997)의 연구에서 중산층 유아의 안정성 점수가 저소득층 유아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계층의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본 연구에서 83명 중 10명으로 12%밖에 안 된다는 점 등은 소득에 따라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의 일반적 경향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은 양육 참여와 양육에 대한 책임감으로 측정하였다. 양육 참여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인 행동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 책임감은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실제적인 양육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영역의 하위영역들 간에 상관을 구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본 척도에서 양육 책임감 중 자원 제공자라 함은 자녀 양육에 투자되어야 하는 물질적 자원 뿐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 및 심리적 자원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아버지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본 연구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아버지들이 실제로 자녀 양육에 더 많

<표 2>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의 차이

|                    | 취업모 자녀(n=33)<br>평균(표준편차) | 비취업모 자녀(n=46)<br>평균(표준편차) | t 값         |
|--------------------|--------------------------|---------------------------|-------------|
| 아버지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 | .38(.19)                 | .30(.19)                  | 1.89(P=.06) |

<표 3> 소득에 따른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의 차이

| 소득           | 평균/Duncun | 자유도 | Sum of Squares | Mean Square | F - Values  |
|--------------|-----------|-----|----------------|-------------|-------------|
| 150만원 미만     | .31 a     | 2   | .22            | .19         | 3.21(p=.04) |
| 150-300만원 미만 | .32 a     |     |                |             |             |
| 300만원 이상     | .47 b     |     |                |             |             |

<표 4> 양육 참여와 양육 책임감과의 상관 관계

| 책임감          | 양육참여    | 발달적 지지  | 돌보기     | 함께 하는 활동 | 총 양육참여 |
|--------------|---------|---------|---------|----------|--------|
|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 | .52**** | .58**** | .50**** | .59****  |        |
|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 .60**** | .74**** | .58**** | .72****  |        |
| 총 책임감        | .56**** | .66**** | .56**** | .66****  |        |

\*\*\*\*P<.001

이 참여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양육 책임감 중 자원 제공자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 행동을 더 많이 예측하여 주고 있으며, 양육 참여의 하위 영역 중 자녀 돌보기 영역과의 상관계수는 .74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와 양육책임감은 자녀의 성별과 출생순위,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

애착 안정성 점수가 상위 1/3 이상인 집단(n=27)과 안정성이 하위 1/3 이하인 집단(n=27)을 선정하여, 애착안정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기준점수는 .43이었으며, 안정성이 낮은 집단의 기준 점수는 .25였다. 애착의 관계적 입장에서 유아의 애착유형이 양육자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역사에 따라 어떻게 조직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애착안정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차이가 있었다. 즉 애착 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아버지는 애착 안정성이 낮은 집단 유아의 아버지보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참여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의 표본이 각각 27명인 점을 감안하여 유의도 수준을 P<0.1 으로 검증할 경우 양육 참여의 세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책임감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세 유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Erikson의 인생발달 단계 중 7단계인 생산성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자녀양육에서의 폭넓은 참여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까지를 포함하는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을 측정하였다. 또한 애착 Q-Set(Waters & Deans, 1985)을 사용하여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을 측정, 아버지노릇과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은 선행 연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한 이유로 선행 Q-Set연구에서는 미국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준 점수를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준 점수(이영 등, 1997)를 적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AQS 선행 연구에서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 범위는 12-18

〈표 5〉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및 자녀 양육 책임감의 차이

| 영역             |              | 집단 | 전체(N=83)<br>평균(표준편차) | 유아의 애착 안정성       |                  | t 값          |
|----------------|--------------|----|----------------------|------------------|------------------|--------------|
|                |              |    |                      | 낮은집단<br>평균(표준편차) | 높은집단<br>평균(표준편차) |              |
| 양육참여 (총점)      |              |    | 74.25(13.92)         | 69.85(14.36)     | 77.63(13.23)     | -2.07(p=.04) |
| 양육참여<br>하위영역   | 발달적 지지       |    | 24.61( 5.34)         | 23.00( 5.40)     | 25.50( 4.95)     | -1.79(p=.08) |
|                | 돌보기          |    | 31.24( 6.23)         | 29.75( 6.72)     | 32.78( 6.04)     | -1.78(p=.08) |
|                | 함께 하는 활동     |    | 18.17( 3.77)         | 17.11( 3.54)     | 19.26( 3.61)     | -2.23(p=.03) |
| 자녀 양육 책임감 (총점) |              |    | 54.92( 6.88)         | 54.32( 6.79)     | 55.56( 6.14)     | -.71(p=.48)  |
| 책임감<br>하위영역    |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 |    | 36.37( 5.18)         | 35.71( 4.97)     | 37.30( 5.02)     | -1.17(p=.25) |
|                | 자녀양육자로서의 책임감 |    | 18.58( 2.55)         | 18.61( 2.45)     | 18.39( 2.39)     | .33(p=.74)   |



개월 유아(이정희, 1993, 나유미, 1996)에서부터 56개월 유아(박응임, 1997, 1998)에 이르기까지 분포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 점수를 적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초기에 Waters와 Dean (1985)는 12개월, 24개월, 36개월 기준 점수를 각각 별도로 산출하였다. 이후 애착 Q-Set 개정판 (Waters, 1987)에서 단일 기준을 제시, 12개월에서 36개월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 부모와의 격리와 재결합 상황에서 12개월 유아가 보이는 반응과 36개월 유아가 보이는 반응은 몇가지 항목에서는 매우 다르다(이영 등 1997). 이영 등(1997)은 한국 아동의 애착 안정성 기준 점수를 개발하면서 12개월 유아와 36개월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안정성 기준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연령의 범위를 30개월 전후의 유아로 한정하여 36개월용 기준 점수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점이 유아의 애착 행동 분류 과정에서 보다 신뢰로운 분류를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Posada 등(1995)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아의 행동은 문화에 따른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부모나 양육자가 선호하는 유아의 행동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준 점수를 적용한 본 연구가 미국 기준 점수를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보다 유아의 안정성 점수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표집의 용이성 때문에 전주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통해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포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한 아버지에게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집 결과 본 연구대상 아버지는 소득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문대졸 이상이 75%였으며, 아버지의 직업도 전문직과 사무직이 6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중산층이 표집되었다. 이영 등(199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 유아의 점수( $M=41$ )가 저소득층 유아의 점수( $M=24$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아버지들

이 실제로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자녀의 애착안정성과 관계가 있었던 영역은 양육참여였다. 양육참여와 책임감간에 상관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아버지의 양육 책임감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양육 책임감보다는 유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애착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자녀와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정서적 자원이 자녀의 사회, 정서,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실행모델 형성 과정에서는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더 의미있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 중 자녀의 발달적 지지나 돌보기 형태의 양육참여보다는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가장 잘 예측한 본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유아기에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와는 달리 아버지의 심리적지지가 양육 행동을 통하여 유아에게 전달될 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질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측정하여 유아의 실행모델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애착을 관계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애착 형성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아버지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순위와 개인적 특성과 무관하다면 애착 안정성도 유아의 성별이나 출생순위보다는 양육자와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애착안정성을 상위 1/3 집단과 하위 1/3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에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아버지가 안정성이 낮은 집단의 아버지보다 자녀 양육 참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의 관계적 접근을 지지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애착의 관계적 모델을 좀 더 세밀하게 분

석하기 위해서 유아의 기질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을 어머니의 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하여금 유아의 애착 행동을 각각 평가하도록 하여 비교 분석을 한다면,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관한 자료가 보다 신뢰로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애착의 관계적 틀에서 진행된 연구이다. 유아의 애착 유형을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의 역사로 보는 Ainsworth 접근이 유아와 양육자간의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한다는 점(격리불안에 대한 타고난 성향 또는 다른 기타 내인적 특성보다는)은 발달심리학이 개인의 연구를 넘어서 관계를 측정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아-양육자 관계가 평가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이후의 개인적 기능을 예측한다면 이는 중요한 이론적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유아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질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질을 이끈다는 점이 중요한 함축점이 되는 것이다(Srouf, 1985).

많은 연구가 안정애착(불안애착과 대조하여)은 또래역량, 자아존중감, 호기심, 새로움에 대한 대처, 실수에 대한 대처,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열정과 지속성, 독립성 및 문제행동의 빈도, 기타 다른 요인들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 부모-자녀관계가 안정적인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더 나은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Main & Cassidy, 1988). 그러나 국내 애착관련 연구는 주로 애착의 선행요인 또는 관련변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유효순(1996), 박응임(1998)이 유아의 애착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들은 유아의 발달을 애착과 동시에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도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상태를 동일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애착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지, 그리고 유아의 애착의 발달적 결과는 어떠한지를 추적

하기 위해서는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생의 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이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다면, 거꾸로 아동발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 문제를 생의 초기에 부모자녀 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1) 김영명(1998). 어머니 및 보육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에 따른 정서적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나유미(199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나중혜(1994). 어머니와 탁아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4) 박응임, 유명희(1997).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영아기 낮선 상황 애착 유형과 유아기의 애착 안정성. 아동학회지 제 18권 2호, 33-41
- 5) 박응임(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3호, 117-129.
- 6) 양미경(1998). 아버지의 양육생산성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상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7) 유효순(1996). 애착의 안정도와 유아의 자아지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9권 1호, 110-120.
- 8) 이영·신은주·나중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1). 아동학회지, 15권 2호, 37-54.
- 9) 이영·신은주·나중혜(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3권 3호, 150-165.
- 10) 이영·박경자·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제 18권 2호, 131-148.
- 11) 이영환(1993). '낮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경희대 박사논문

- 12) 이영환(1994). 3세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 Q-Sort 가정관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권 2호, 108-118.
- 13) 이영환(1996). 유아-아버지간의 실험실 애착유형과 가정에서의 애착 안정성: 1세 낮선상황 분류와 3세 Q-Sort 관찰. 대한가정학회지, 34권 1호, 177-187.
- 14)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생산적인 아버지노릇: 척도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권 12호 79-89
- 15) 이정희(1994).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연세대 박사논문.
- 16) Ainsworth, M.D.S., Blehar, M.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17)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3-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18) Hawkins, A.J. & Dollahite, D.C.(1997). Beyond the role-inadequacy perspective of fathering. In A.J. Hawkins & D. C. Dollahite(Ed.). *Generative Fathering: Beyond deficitperspectives*(pp. 200-216). Sage Publication.
- 19) Lamb, M. E.(1986). The Changing roles of fathers. In M. E. Lamb(Ed.), *The Father's role: An applied perspective*(pp.3-27). New York: John Wiley.
- 20) Lamb, M. E.(1986). Introduction: *The Emergent father*. In M. E. Lamb(Ed.), *A cross-cultural perspective*(pp.3-2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21) McBride, B.A.(1989). Interaction, accessibility, and responsibility: A view of father involvement and how to encourage it. *Young Children*, 44, 13-19.
- 22) Palkovitz, R.(1997). Reconstructing "Involvement": Expanding conceptualizations of men's caring in contemporary families. In A.J. Hawkins & D.C. Dollahite(Ed.). *GenerativeFathering: Beyond deficitperspectives*(pp. 200- 216). Sage Publication.
- 23) Pederson, D.R., Moran, G., Sitc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on, H.(1990). Maternal Sensitiviting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093.
- 24) Posada, G., Gao, Y., Wu, F., Posada, R., Tascon, M., Sch elmerich, A., Sagi, A., Kondo-Ikemura, K., Haaland, W., & Synnevaag, B.(1995). The secure base Phenomenon across cultures: Children's behavior, mothers' preferences, and experts' concepts.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e,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Serial No. 244), 27-48.
- 25) Schachere, K.(1989). Maternal employment during infancy: Family processes mthat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mother-infant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26) Snarey, J.(1993).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four-decade study.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27) Sroufe, L.A.(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28) Teti, D. M., & McGourty, S. (1996). Using mothers versus trained observers in assessing children's secure base behavi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Child Development*, 67, 597-605.
- 29) Vaughn, B. E., & Waters, E. (1990). Attachment behavior at home and in the laboratory: Q-sort observations and strange situation classifications of

- one-year-olds, *Child Development*, 61, 1965-1973.
- 30)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41-6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209).
- 31) Waters(1987). *Attachment Behavior Q-Set*(version 3.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